## '바이크 행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외벽에 영구 설치

지난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출품됐던 도시형 자전거 거치대 '바이크 행어(Bike Hanger)'가 제작자의 기증으로 전시장 외벽에 최근 설치됐다.

'바이크 행어'는 협소한 도심공간에서 자전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자전거 거치대로, 지난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 뉴욕 마니페스토 건축사무소의 안지용·이상화씨가 출품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설치된 바이크 행어는 총 여섯 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다.

# '브랜드공연 축제' 뜨거운 무대가 시작된다

### 6월23일~7월21일 광주문예회관 등서
### 김영순 무용단 '화이트 웨이브'를 시작으로
### '백조의 호수' 등 8개 공연… 5월1일 티켓 오픈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 공연축제' 일정과 참가작품들이 확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무용, 국악, 연극을 중심으로 한 8개 참여작품을 확정, 발표했다. 행사는 오는 6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광주문예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해외·국내 화제작을 만나다

오프닝 공연을 장식하는 작품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영순 무용단이다. 광주 출신 김영순 예술감독이 이끄는 김영순 무용단은 이번 축제에서 섬세한 몸짓으로 물의 흐름을 표현한 '화이트 웨이브'를 선보인다.

2001년 미국 브루클린에 화이트 웨이브 존 라이언 극장을 열고, 큐레이터 및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덤보 댄스 페스티발, 콜 뉴욕 댄스 페스티발, 웨이브 라이징 시리즈 등 매년 3 개의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 뉴욕 무용계의 대표 인물이다.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공연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한국의 전래 설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익살과 신명으로 풀어낸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한국 전통 음악과 테크노 등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과 파격적 해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국립발레단의 주 레퍼토리인 '백조의 호수'는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드 왕자의 애달픈 사랑, 백조들의 아름다운 군무신, 흑조의 32바퀴 회전 등 정상급 테크닉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국악 분야에서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이 초청됐다. 국악에 대한 기존 관념을 부수는 '춤추는 관현악'은 국악관현악 사운드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국악관현악 편성에 디지털 악기 음원을 더한 작품으로 민요 선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지역 예술단체의 역량을 보다

지난해 '쟈스민 광주'를 무대에 올렸던 광주시는 자체 브랜드로 제작하는 총체극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보인다. 또 지난해 브랜드 공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타악그룹 얼쑤의 '인수화풍'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다.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두 작품도 무대에 오른다.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에서'는 시골마을의 간이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간 연극이다. 올해로 창단 30년을 맞은 놀이패 신명이 무대에 올리는 '언젠가 봄날에'는 5·18을 눈물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5월1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백조의 호수' 이외의 모든 작품의 티켓 가격은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A석 1만원이다. 공연 마니아들을 위해 7개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6만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문의 062-670-74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지난 28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느 멋진 토요일愛, The 멋진 음악회'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아시아문화마루, 시민들 품으로…

### 'The 멋진 음악회' '夜, 벼룩시장' 등 다양한 관객층 발길
### 추진단 "연령·국적·장르 아우르는 문화행사 진행할 것"

토요일이었던 지난 28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한창인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 광장에서는 흥겨운 문화잔치가 열렸다. '어느 멋진 토요일愛, The 멋진 음악회'에서는 풍물, 힙합댄스, 태권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돼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대형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진 아시아문화마루가 들어선 건 지난 2010년이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기는 했지만 일부 예술인들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문턱이 높았고 나와는 상관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시민들의 참여도는 극히 낮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올해부터 아시아문화마루와 앞마당을 시민들과 함께 꾸리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예술인들은 물론이고, 아마추어 동아리, 외국인 등 평범한 이웃들이 함께 즐기고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광주시 동구청, 각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령, 국적, 장르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동구청이 주최하는 '어느 멋진 토요일愛, The 멋진 음악회'(매주 4번째 토요일 오후 7시)는 한달에 한번 시민들을 찾아간다. 한달에 2~3차례 열리는 '청춘의 자격'은 전남대, 조선대 등 각 대학동아리들이 젊음을 발산하는 행사다.

매월 세번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夜(야), 벼룩시장'은 지난해부터 열려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젊은 창작가들의 소장품과 개인들의 창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거래 장터로 신나는 공연과 이벤트가 함께한다.

'아시아, 10㎝ 더'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과 외국인들의 문화공연이며 '우리 동네 문화행사'(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3시)는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함께보는 '무비나이트'(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한국종합예술학교 아시아 국가 문화예술장학생 공연인 '아시아 예술공연', 아시아 문화개발원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강좌 등도 열린다.

추진단은 또 최근 문화전당 건립 골조공사 대부분이 완료됨에 따라 전당 건립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1~2차례 문화전당 공사 현장을 살펴보는 시민 탐방 프로그램(문화마루 카페에서 신청)도 운영한다.

그밖에 문화전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의 콘텐츠를 강화하며 하반기 부터는 문화전당 팸투어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0-018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관람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중·고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이뤄지며 전시·교육·관람 환경 등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시립미술관은 설문 조사 기간 중 미술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뿐만 아니라 현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등 미술관을 찾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수렴,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설문 조사가 향후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미술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재 풀리지 않는 일들은 임진년 윤달 기도로...

神通(신통)의 현담스님 초청 '사주천명' 개인친견

壬辰年 윤달은 '자작자수' 와 '초재진보'를 이룰 수 있는 달!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소멸시킬 수 있는 윤달. 재물과 명예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의 윤달.

운세는 본인의 전생업에 따라 변해

스님께서는 개인의 사주에는 정명(正命), 수명(隨命), 조명(遭命)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명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길함이 저절로 이르는 것인데 전생에 많은 선업의 공덕 때문이며, 둘째 수명이란 힘써 노력하면 길복이 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대로 흉화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이란 좋은 일을 하여도 재앙이 닥치고 원하는 바도 아닌데 밖에서 부딪혀 흉화를 만납니다. 여기에는 전생에 크나큰 과보때문이니 이렇게 세 가지 명을 추명하여 자신이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神通의 사주천명 집대성

부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묻는 불자 여러분에게 스님께서 여명(黎明)을 비춰줍니다. 전국 명산에서 35년간 수행으로 쌓은 선근(善根) 공덕(功德)을 중생들에게 돌리는 마음으로 사주친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근심과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자신의 다가올 운을 알려드려 실패를 막고 형통의 기운이 생길 수 있는 방편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친견을 권해드립니다

- 창업/자영업
- 결혼/이성문제
- 취업/이직/승진
- 학업/진로문제
- 삼재/조상
- 부동산/주식

사주 친견비 : 2만원

광주광역시 일정

일시 : 2012년 5월1일~2일(2일간)

장소 : 광주시 서구 화정동 858-5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사전예약 062-385-9954

◉ 사전 예약하신분만 개인친견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주천명 기간내에 친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초재진보' 부적을 무보시로 드립니다. 경면주사로 직접적은 신필부적으로 비밀스런 곳에 보관하시면 효험이 빠르게 나타납니다.